

월요광장

희망하는 것, 그것은 용기다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푸른 용의 이름을 가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하지만 새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도 들린다. 세상은 기대할 것도, 희망할 것도 없다는 헛 헛함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사실 사방 모든 생기가 얼어붙은 듯, 공허하고 요란스러운 말장난만 오가는 것을 보자면, 다른 말을 듣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변화도 성장도 없다면, 퇴행과 정체는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시간은 언제나 제 속도로 흐르니 앞당겨 써서 없애거나, 그냥 시간을 조용히 피해 갈 수 없다.

시간의 본질은 빈 화폭이나 그릇과 같다. 무엇을 그리며,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와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앞에 놓인 허락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새해가 마치 희망할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한다. 시간은 우리가 품은 희망의 실천과 행위의 결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희망에는 두려움도 항상 함께 한다. 희망하는 것은

단순히 행운을 기다리는 대신에 실천을 통해서 새 변화를 만드는 것이니, 두려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다. 먼저 자신이 진심으로 희망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희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막연히 원하고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용기 없는 희망은 공허한 기대와 무책임한 바람이며 우연한 행운에 대한 탐욕이다. 사람은 개인의 사적인 희망과 '나'의 집합체인 사회적, 공적인 영역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 사실 이 둘은 나뉘진 것이 아니고, 서로 깊게 연동되어 있다. 개인적 희망과 공동체적인 희망의 실현은 서로 교차하고 관통하는 지점에서 가능하다. 완전히 개인적인 것도 없고, 오롯이 공적인 것만도 없다는 의미다.

그대 그리스에 있었던 여러 제도 중 하나인 도편추방제에 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화가 있다. 이 도편추방제는 국가의 지도자 중 특정 인물을 추방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추방하고 싶은 특정 사람의 이름을 도편에 쓰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추방되었다. 이 도편 추방과 관련된 일화의 주인공이 아리스티데스이다. 그는 아테네의 중요한 정치가이며 전쟁영웅으로,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불렸다. 아리스티데스의 지도자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런 호칭을 시민에게서 듣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목격한다. 아리스티데스는 당시 막강한 경쟁 관계에 있는 권력자와 갈등이 커졌고 결국 도편 추방을 당했다. 여기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정해진 제도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한 태

도다.

이야기에 의하면 아리스티데스를 모르는 한 문맹 투표자가 도편에 아리스티데스의 이름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리스티데스는 문맹자에게 도편에 써달라는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투표자는 "잘못은 없고 또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어디서든 그를 공명정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짜증이 난다"라고 했다. 물론 아리스티데스는 자신의 이름을 도편에 썼다. 또 다른 이야기는 도편제도가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도편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한다. 추방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썼고, 심지어는 다른 정적의 이름을 쓴다 한들 문맹인이 알 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속이지 않았다.

이 일화는 공적 영역에서도 개인의 품격과 공명정대한 윤리 의식이 결정적인 조건임을 확실히 보여 준다. 권력자가 힘으로 압박하는 대신에 무지하다고 해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움이다. 또한 권력을 가진 자의 진정한 힘과 명예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가까이 승복하는 것임을 일화에서 본다. 시민은 길들여지는 개인들의 무리에 대한 호칭이 아니고, 순종하는 품앗이로 주는 공로패도 아니다. 누구나 스스로 시민적 삶을 희망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이다. 그래서 개인이자 시민인 우리가 새롭게 희망하는 것은 곧 용기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두려움 없이 나가는 우리를, 다르기에 더욱 환대하는 서로를 희망하자. 사람다움을 희망하는 용기를 희망하자.

수필의 향기

완성을 꿈꾸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인생은 미완성, 그래도 우리는~ 곱게 살아야해~"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다. 편안한 노래, 좋은 노래는 저절로 나온다. 누구나 멋진 인생을 꿈꾼다. 화가는 그림으로, 교수는 학문으로, 농부는 결실로, 어민은 만선으로, 떠돌이는 정착으로, 삶의 허기를 포만 가득 꿈꾸며 마음껏 웃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실은 늘 노래의 결말처럼 미완성이다.

예전 일이다. 친구 결혼식 하객으로 갔다가 그를 만났다. 근 30년 만의 일이었다. 식이 진행되는 중인데 난 누가 내 등을 꼭 껴안는 걸 느꼈다. 젊은 사람의 온기가 등을 통해 가슴으로 따뜻하게 다가왔다. 뒤를 돌아보고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다.

신촌출마 교사시절, 우리 반 아이였다. 3학년 2학기, 기껏 4개월 뒤에는 졸업할 때였다. 녀석은 자꾸 결석을 했고, 그때마다 난 교장실로 불려갔다. 왜 장기 결석자를 퇴학시키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던 때였다. 3월

결석이면 출석 추곡서를 보내야 했고 3번 반복하면 퇴학을 시키던 때였다. 지금과 달리 학생이 넘쳐났던 시절, 그날도 교장 선생님은 녀석이 사고를 쳐서 만약 누스라도 나오면 학교 명예를 어찌할 것이냐며 목에 피대를 세우셨다.

녀석 자취방엔 온기가 없었다. 아궁이까지 썰렁했다. 내가 나오자 놀이터에서 검은 그림자가 획 답을 남겼다. 직감으로 녀석인 줄 알았지만, 이치저리 피하는 녀석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다. 이미 부자지간 간극은 냉랭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 전에 새 엄마가 들어왔으니, 새 엄마에 대한 거부감 못지않게 아버지께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찬 녀석의 마음은 거친 풍랑이 세차게 일고 있었다.

시골에서 유학을 보냈지만 그때 그에게 졸업장은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행복하게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 인해 상처만 커질 뿐이었다. 결국 새 엄마가 사는 고향 집을 등지고 학교도 등졌다.

땅도 메말라야 물이 필요하고 잘 흡수하는 법, 축축한 땅은 그대로 물을 흘려 보내던 녀석은 어떤 충고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토해냈다. 절망과 분노가 그를 칭칭 울아만 뎀 했다.

재혼이 흔치 않은 때였다. 어머니를 잃은 고통에 새 엄마의 이른 출현은 녀석이 넘기 버거운 고개였다. 장

기간 누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혼한 아버지가 40대 중반, 부모지만 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일을 서두른 측면도 없지 않았다.

태풍이 불면 나뭇가지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담이 무너지고 집이 넘어간다. 해일은 마을을 덮친다. 인간의 내면에 이는 심화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다행히 녀석은 어느 일터에서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부모가 되었다. 여자의 설득으로 아버지와 화합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부모님 옆에 집을 짓고 같이 축사 일을 하고 있단다. 잃어버린 사랑을 사랑으로 되찾은 것이다.

친구와 재혼한 사람은 그의 사촌 누나였다. 그녀 역시 재혼이었다. 결혼은 완성 같은데 역시 미완성이었다. 사랑을 동사, 진행형이라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없어 보인다.

두 번째 결혼한 친구나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나 모두 생의 완성을 위해 나름의 길을 가고 있다. 사는 방법도 사랑하는 법도 각기 다르다. 그 누구도 실패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멋지고 빛나게 자기 인생 지도를 그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도 인생은 여전히 깊고 심오하다. 무엇보다 완성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길 뿐, 미완성이다.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나를 들여놓아야 한다. 혼자 흥얼거리다.

"인생은 미완성,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야 해~"

社說

이낙연 리브콜에도, '낙석연대'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일 리브콜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몸담아 온 정당을 떠나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예고했다.

이들은 각자 신당을 만든 후 민주당 탈당 그룹이 만든 '미래대연합'은 물론 금태섭, 양향자 신당 등과 연합해 제3차대 박턴트를 치겠다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낙연-이준석 연대를 가리켜 일명 '낙석연대'라고 부르며 누가 주도권을 쥐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준석을 향한 이낙연의 리브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도권은 이미 이준석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청년정치를 상징

하고 자신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이라 연대가 이뤄질 경우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며 리브콜을 보냈다. 14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선 텐트를 크게 쳐달라며 제3차대 박턴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엄숙주의를 견어내야 한다'거나 제3차대 박턴트에 대해서도 '뾰다방 이미지로 비친다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으로 볼 때 낙석연대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5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지율에서 밀리고 텃밭인 호남에서도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직계로 불리는 원칙과 상식 소속인 민주당 운영한 의원조차 탈당 직전 등을 돌린 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놓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 전염병 사령탑 역할

조선대병원에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 이 생긴다. 신종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고 권역 내 사령탑 역할을 할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때보다 감염병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 병원 설립은 반가운 소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국내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이 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독립 건물로 운영되는 병원 건립에는 총 사업비 781억 원이 투입되며 연 면적 1만 3202㎡(지상 7층·지하 2층)에 총 98병상(음압병상 36개) 규모로 오는 2026년 10월 완공이 목표다.

병원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실 등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설과 음압수술실·병실, 교육·훈련실 등이 들어서며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등을 검사·실험할 수

있는 생물안전실험실도 운영한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워두는 20% 정도의 병상을 제외한 나머지 병상은 결핵이나 독감 등 다른 감염병 환자의 진단·치료를 활용되며 전문인력 훈련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호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양산 부산대병원 등 전국 4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세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까지 더해 모두 8곳의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된 후 5년간 병원 기능 등을 검토하며 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런 만큼 착공부터 완공까지 병원 건립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순차적으로 건립될 경북권, 충청권 등의 감염전문병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닭은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다. 유전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닭은 동남아 일대에 서식하는 붉은 벼슬에 갈색과 검은색 깃털을 가진 적색야계(赤色野鶩)에서 기원했다.

한반도에 언제부터 닭이 등장하고 사육됐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다만 광주 신장동 유적, 해남 군곡리 패총, 경북 경산 일당 유적, 경남 사천 녹도 패총 등지에서 닭 뼈가 출토돼 철기시대부터 닭이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닭은 위신재(威信財, 신분이나 권위를 뜻하는 물품)나

는 때로 미루 희생제와와 식용으로 쓰인 듯 하다. 흥미롭게도 꿩의 뼈가 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녹도 패총 유적의 경우 98%가 꿩이고 닭의 비율은 2%대다. 이후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는 닭의 비율이 20%대까지 올라간다. 연구자들은 꿩이 야생종인 탓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점차 닭이 꿩을 대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꿩 대신 닭'의 기원인 셈이다. 꿩은 포란 시기가 5월 초부터 7월 중순으로 제한적이고 닭은 항시 알을 낳고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고려됐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식용 등으로 활용됐다. 도입 초기에는 적색야계가 서식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닭은 위신재나 관상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려한 모습을 가진 진귀한 동물로 아무나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닭이 위신재로 쓰인 사실은 경남 녹도 패총에서 함께 발굴된 짧은 꼬리 원숭이 하악골도 미뤄 알 수 있다. 닭과 마찬가지로 이 원숭이는 한반도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이다. 일본 열도에서 산다고 알려져 있다.

닭은 철기, 삼국시대 유적에서 발굴되

는 때로 미루 희생제와와 식용으로 쓰인 듯 하다. 흥미롭게도 꿩의 뼈가 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녹도 패총 유적의 경우 98%가 꿩이고 닭의 비율은 2%대다. 이후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는 닭의 비율이 20%대까지 올라간다. 연구자들은 꿩이 야생종인 탓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점차 닭이 꿩을 대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꿩 대신 닭'의 기원인 셈이다. 꿩은 포란 시기가 5월 초부터 7월 중순으로 제한적이고 닭은 항시 알을 낳고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고려됐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식용 등으로 활용됐다. 도입 초기에는 적색야계가 서식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닭은 위신재나 관상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려한 모습을 가진 진귀한 동물로 아무나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닭이 위신재로 쓰인 사실은 경남 녹도 패총에서 함께 발굴된 짧은 꼬리 원숭이 하악골도 미뤄 알 수 있다. 닭과 마찬가지로 이 원숭이는 한반도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이다. 일본 열도에서 산다고 알려져 있다.

닭은 철기, 삼국시대 유적에서 발굴되

K치킨의 고고학

배이징, 호찌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 1순위는 한국식 치킨,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 재료 쓰인 사실은 경남 녹도 패총에서 함께 발굴된 짧은 꼬리 원숭이 하악골도 미뤄 알 수 있다. 닭과 마찬가지로 이 원숭이는 한반도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이다. 일본 열도에서 산다고 알려져 있다.

닭은 철기, 삼국시대 유적에서 발굴되

기 고

단세포는 더 이상 단세포가 아니다



김용근
학림학당 학장
창의융합공간 SUM 대표

'이 늑대 같은 인간' 남편을 동물에 비유하여 비꼬는 부정적인 말이다. 그러나 늑대에 대한 생태적 본질을 잘 모르던 시대의 언어이다. 수컷 늑대가 짝을 찾으면 한눈 팔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고, 상대가 아프면 한적한 곳에 휴식을 취하게 주위를 돌며 보호하고, 죽으면 일주일 정도는 목놓아 울고 때론 같이 죽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더 이상 늑대가 아니다. 오직 애처가인 늑대 같은 남편을 만난다면 최고의 행운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세포 같은 인간'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이 단 한가지만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주변과 상황에 무관하게 한가지 질서만 고집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이다. 그러나 늑대처럼 단세포에 대해 잘못 인식된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말이다.

부정적인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여 '뉘뉘 같은 사람'이라 말한다. 인간을 어떤 특정한 사물에 부정적으로 비유한 표현이며, 특정 지역에서 관습화되어 내려왔다. 이처럼 어떤 특정 사물과 비교하는 것은 아직 그 사

물을 깊게 숙고하지 못했거나, 보이는 걸만 보거나, 특정 행위와 현상이 국한되고, 특정 지역과 기간에 사용 등의 인간 중심의 기준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의미의 맥락도 달라져 왔다.

비유적 표현은 논리적 시각과 어법에서 이탈하지만 비유된 사물에 대한 느낌과 의미를 확장하여 언어가 갖는 유효성을 창출한다. 이런 비유적 표현 속에서 사는 인간은 사물과 세계에 대한 체험적인 삶과 사유를 보여 준다.

단세포인 황색망사점균은 포자로 번식하기 전까지는 단세포 생물로 주위에 넓게 퍼져 나가면서 살아간다. 단세포이지만, 마치 신경질이 있는 근육과 신경을 가진 단순한 뇌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행동이 밝혀진 후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이런 연구 중 밝혀진 놀라운 연구가 있다. 황색망사점균은 곰팡이의 한 부류로 끈끈한 점액(slime)과 노란색을 띠며, 세포내에서 서로 연결망처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란다. 네트워크의 기능은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고 융합으로 형성시키는 인간이 알아낸 고도의 지적기능이다. 그러나 어떻게 단세포 생물이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 놀라운 일이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은 점시에 축소된 도쿄 광역권과 주변 도시의 철도역 지도를 그려 놓고, 각 역에 해당하는 위치점에 먹을 귀리를 놓아 황색망사점균의 이동 경로를 관측 연구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으로 연결된 가지에 집중하는 모양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경로는 도쿄의 철도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미로를 통한 최단 경로를 찾거나, 총 길이는 짧고 두 점 사이의 평균거리도 짧은 효율적인 연결망식을 찾는데 유용한 수리적 문제를 풀어낸 것과 같다.

단세포인 황색망사점균이 거의 정확한, 최단 거리의 메카니즘을 찾아낸 총명함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 단세포의 행동은 전기회로의 복잡성과 제약 조건이 커지는 메카니즘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한편, 이 단세포는 인간처럼 단독으로 살 수 없어 자연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단세포 내에서 자기 내의 물질을 이용하여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는 것이 인간보다 효율적 생물이다.

많은 순서적 문제 해결에서 비용과 에너지의 최소화로부터 이익의 극대화가 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로 풀어낸다. 그러나 단세포라 비꼬는 생물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을 볼때 더 이상 단세포 비유적 표현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늑대는 더 이상 늑대가 아니고, 단세포는 더 이상 단세포가 아니듯, 비유적 표현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원 관념과 그와 비교되는 대상인 보조 관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관념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본질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 변형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유할 사물의 본질을 진실로 바라보게 되고, 인간 중심 폭력적 언어의 순화와 문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진화하게 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52	예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64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